수달 서식지 체계적 보존대책 마련한다

전주시, 환경 · 동물 전문가 등과 수달 다울마당 구성 · 운영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에서 살아가는 수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갖추기로 했다.

전주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 서식이 관찰됐으며, 이는 하천 생태계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전주천 등 도심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 보호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수달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체계적인 보호대책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달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보호 관리를 위한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수달 서식의 위협요인 분석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긴급 착수키로 했다.

우선, 환경 전문가와 동물전문가,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다울마당을 통해 전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달 보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018년 3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전주천 · 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도 실시키로 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하천의 현황과 특성 조사, 수달 서식지에 대한 분포 조사, 수달 서식지 현실태, 위협요소(로드킬 등)에 대한 조사 및 보호방안, 수달의 관리.보존 대책, 수달 보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분석 등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천과 삼천 등 도심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 개체수와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보호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 수달 서식지 보존 및 수생태계 훼손방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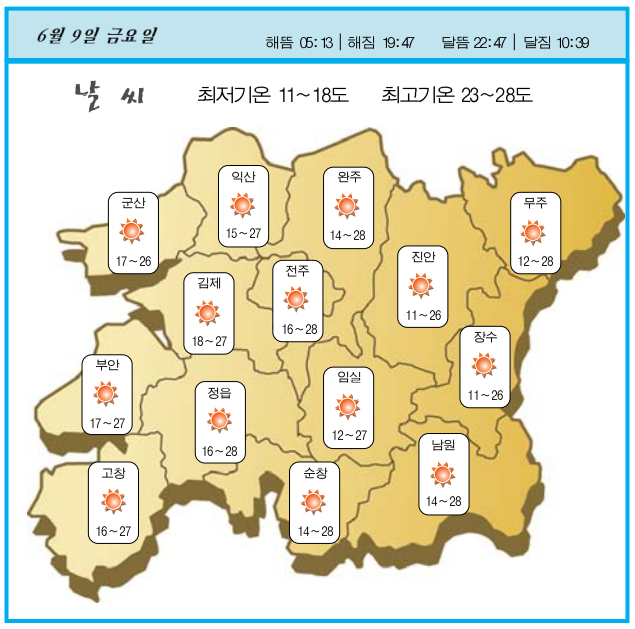
아울러, 시는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하천 둔치에서의 낚시행위와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달이 서식하는 것은 전주천의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수달과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심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언더패스 등 하천 주변도로를 지날 때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여성 친화형 일터 조성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8일 센터 4층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삼신기업 등 전주지역 20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익산교육지원청, 유쾌 · 상쾌 · 통쾌 교사 연수

전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8일 '자유학기 수업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유쾌 · 상쾌 · 통쾌 교사 연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중학교 자유학기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3차까지 기획된 이번 연수는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을 현장감 있는 수업적용형 연수로 풀어내어 관내 중학교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연수는 작년 12월에 구성된 익산자유학기전문학습공동체와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기획, 설계한 프로젝트 연수로서 3차 연수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호응과 만족도 등 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 하반기 연수도 기획할 예정이다.

현장교사들이 자유학기 수업에 무엇을 원하는가, 연수를 받고 와도 수업개선과 이어지지 못하는 연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번 연수는 1차 연수 '내가 있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2차 연수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협동학습으로 좋은 수업 만들기' 3차 연수 '날티놀티 놀이를 활용하며 즐기는 자유학기 수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3차에 걸친 연수가 모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형, 수업적용형 연수로서 모둠형 수업으로 구성되어 강사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밀도있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류지득 교육장은 학교혁신의 중심은 수업혁신이며 이번에 기획한 '자유학기 수업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유쾌 · 상쾌 · 통쾌 교사 연수'가 교사들의 현실적인 수업고민과 갈증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정해은기자

부모교육 활성화 정책 발전 방향 토론회

전주시의회, 전문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는 8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공유 · 확산하고 부모교육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토론회는 서난이 의원이 사회를 맡고 토론회 좌장에는 오정화 의원, 주제발표와 토론에는 양은순 HIS University 총장, 김인규 전주대 교수, 송화진 전주비전대 교수, 최송림 상아유치원장, 정유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고미희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모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전문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자격 인증제, 부모교육 필수 교육과정 도입, 부모교육 인터넷 및 TV 채널 운영, 가족생활 컨설팅단 운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고미희 의원은 전주시 여건을 고려한 공공형 거점 공간 활용을 통한 맞춤형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으며 오정화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0전주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소개하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하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활성화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오늘 담당자 연수 진행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교사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에는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중 · 고등학교 학업중단숙려제, Wee센터 학업중단숙려제 등 업무담당자 96명이 참석한다.

이날 연수에서는 신성숙 한일장신대학교 교수가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연수는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위기 징후의 조기 발견 및 학업중단 예방 활동 강화, 위기 청소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한국전력, 배전손실 개선 솔루션 개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배전손실 개선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7일 오후 3시 전북대 본부별관 1층 이노카페에서 이철로 단장과 김락현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력손실 및 상(相)관리 관련 기술 자료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현장기술 정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는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학술적 연구 진행 및 실증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장은 "역량 있는 두 기관이 이번 협약으로 배전 전력손실 개선 시스템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관련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